

No. 22

석회화 건염의 보존적 및 수술적 치료 결과 Conservative and Arthroscopic Treatment for Calcific Tendonitis

대구가톨릭대학병원 정형외과

최창혁 · 김신근 · 이호형

서 론

석회화 건염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 및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 후 칼슘염 소실과 임상경과를 비교 관찰하였다.

재료 및 방법

2002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석회화 건염으로 진단받은 126례에 대하여 관찰 22례, 견봉하 관절강내 주사치료 88례, 관절경적 치료를 16례에서 시행하였으며, 주사치료 후 추시 관찰이 가능하였던 64례 및 수술 치료 후 추시 관찰이 가능하였던 12례를 대상으로 하여 칼슘염의 소실정도와 임상증상의 호전을 비교 관찰하였다. 126례의 평균연령은 53세, 여성이 77%였으며, 극상근에 침범한 경우 84%였으며,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110례 중 추시 관찰은 주사치료 후 73%(64/88), 약물 및 물리치료 후 27%(6/22)에서 가능하였으며, 수술적 치료 후에는 75%(12/16)에서 추시 관찰이 가능하였다.

결 과

주사치료 후 추시 관찰이 가능하였던 64례의 경우 49례(77%)에서 증상의 호전을 볼 수 있었다. 방사선적으로 칼슘염의 완전소실을 볼 수 있었던 23례(36%) 중 20례(87%)에서 통증이 소실되었으며, 칼슘염의 크기에 변화없던 30례(47%)에서도 20례(67%)에서 증상의 호전을 볼 수 있었다. 불완전 소실이 11례(17%)였다. 관절경적 치료를 시행한 16례에서 수술전 및 수술 후 칼슘염의 크기는 각각 19.5 x 6.7 mm, 10.6x4.4mm였으며, 추시관찰이 가능하였던 12례는 전례에서 증상의 호전을 보였으며, 칼슘염은 10례(83%)에서 평균 3.9개월에 완전 소실되었다.

결 론

석회화 건염은 대부분 보존적 치료(87%)가 가능하였으며, 용해기의 급성통증은 스테

로이드주사로 증상의 호전을 볼 수 있었다. 형성기의 석회화 건염에 대한 관절경하 수술적 치료 시 완전제거를 시행할 필요는 없으나, 완전한 증상완화를 위해서는 추시 중 석회침착물의 완전 소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.